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동일금속(109860)

금속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김태립 책임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20.09.17에 발간된 동 기업의 기술분석보고서에 대한 연계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의회

동일금속(109860)

크롤러 크레인용 및 굴삭기용 부품을 통해 건설 장비 시장을 공략 중

기업정보(2022/02/21 기준)

대표자	오길봉
설립일자	1984년 11월 21일
상장일자	2009년 07월 28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강주물 주조업
주요제품	크롤러 크레인용 트랙슈 어셈블리, 굴삭기용 컴포넌트, 트랙스프링 어셈블리 등

시세정보(2022/02/21 기준)

현재가	15,90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1,447억원
발행주식수	9,100,000주
52주 최고가	16,700원
52주 최저가	9,096원
외국인지분율	2.23%
주요주주	오길봉 외 6인 자사주 59.06% 7.03%

■ 건설기계용 장비의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동일금속(이하 동사)은 건설기계용 장비의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크롤러 크레인용 트랙슈, 텁블러, 아이들러와 굴삭기용 아이들러,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 등의 주요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동사는 크롤러 크레인용 부품은 미국,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고 있으며, 굴삭기용 부품은 국내 굴삭기 제조업체 3사(현대건설기계, 볼보건설기계 코리아, 두산인프라 코어)와 일본 제조업체 2개사(히타치건기 등)에 공급하고 있다.

■ 건설 장비 시장은 인프라 개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성장 전망

건설기계장비는 최근에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석유화학설비, 대형풍력 발전설비, 대규모 산업단지 및 인프라 건설, 초대형 교량 및 대형 스타디움 건설 등으로 인하여 초대형화, 다기능, 운반 용이성, 안정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글로벌 건설 장비 시장 규모는 공공 인프라 개발, 신흥국(인도 등) 인구 증가로 건설 활동이 확대되는 등으로 인하여 2020년 1,287.2억 달러에서 CAGR 4.3%로 증가하여 2027년 1,730.0억 달러로 성장이 전망된다(한국건설신문(2021.08, 2021.12)).

■ 매출 정체를 보이나, 해외 크레인 수요 확대 등으로 실적 회복 기대

동사는 2020년 코로나19에 의한 내수 및 수출 부문 장비 수요 감소로 부진한 사업실적을 나타냈으나, 2021년 3분기(누적) 매출 실적은 전년 동기 수준의 외형을 유지하였고, 금융수지 개선을 기반으로 반기순이익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 동사는 인도네시아 해외현지법인의 고철 수급을 위한 정관 목적사항 추가, 건설장비 수요 조사를 통한 거래선 개척,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크롤러 크레인 수요 확대되는 등으로 인하여 향후에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960.5	34.8	97.2	10.1	94.7	9.9	8.9	7.5	18.5	1,037	12,865	7.8	0.6
2019	866.0	-9.8	125.5	14.5	156.9	18.1	13.3	11.5	14.1	1,712	14,549	5.6	0.7
2020	586.1	-32.3	33.1	5.7	66.4	11.3	5.3	4.7	9.3	730	15,052	12.2	0.6

기업경쟁력

건설기계장비 사업 역량

- 크롤러 크레인용 및 굴삭기용 트랙슈, 아이들러 등의 일광생산 기술 보유
- 인도네시아 해외현지법인을 통한 반제품 소재 수입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주요 이슈사항

- 인도네시아 해외현지법인의 고철 수급을 위한 정관 목적사항 추가
- 국내 및 해외 건설장비 수요 조사를 통해 신규 거래선과 신시장 개척 중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 건설기계장비 제품의 일괄생산시스템을 통한 제조
 - 용해, 화학조성 분석, 나사 내기, 용탕 주입, 경질 입자 제거, 표면 닦기, 불링, 연마, 용접, 담글질, 뜨임, 검사(치수검사, 자분탐상검사, 초음파탐상검사, 기계검사), 도장, 포장 등의 과정으로 제조

주요 품목



시장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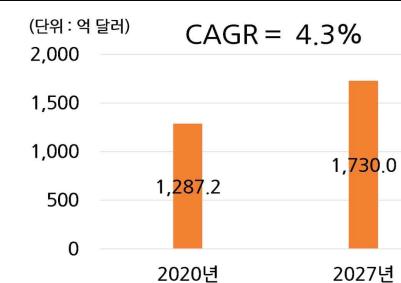
건설기계장비 개발 방향

- 건설기계장비는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석유화학설비, 대형풍력발전설비, 대규모 인프라 건설, 초대형 교량 등으로 인해 초대형화, 다기능, 운반 용이성, 안정성을 고려하여 개발 중

글로벌 건설 장비 시장 전망

- 글로벌 건설 장비 시장 규모는 공공 인프라 개발, 신흥국(인도 등) 인구 증가로 인한 건설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하여 성장 전망

년도	시장규모	CAGR
2020년	1,287.2억 달러	
2027년	1,730.0억 달러	4.3%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사업장의 모든 온실가스 배출시설에 대해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함.
- 동사는 국내외 환경 법규를 준수하여 관련 법상의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품질관리 본부를 조직하고 품질평가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함.
- 동사의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임금 수준은 동 산업(C24) 평균 이상임.

G
(기업지배구조)

- 동사는 내부정보관리 규정과 공시정보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내부거래도 규제하는 등 상장기업으로 공시의무를 준수함.
- 동사는 2021년 무상증자를 시행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배당 활동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침.

*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I. 기업현황

크롤러 크레인용 및 굴삭기용의 건설 장비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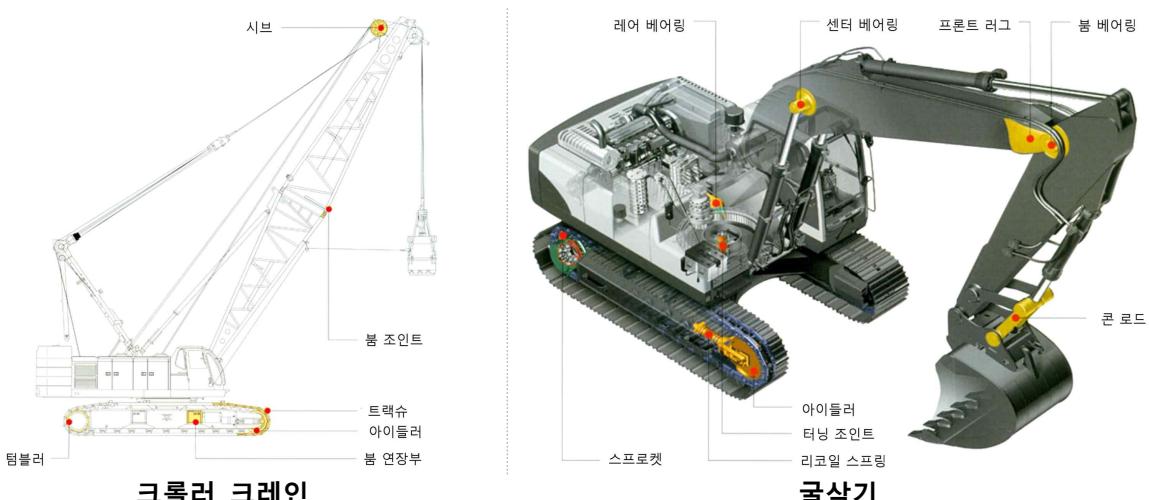
동사는 건설기계용 장비의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크롤러 크레인용 트랙슈, 텀블러, 아이들러와 굴삭기용 아이들러,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 등의 주요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이다.

■ 기업개요 및 주요주주

동사는 1987년 12월 농업기계용주물, 자동차용주물 및 기타 주물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3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건설기계용 장비의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크롤러 크레인용 트랙슈, 텀블러, 아이들러와 굴삭기용 아이들러,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 등의 주요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동사는 크롤러 크레인용 부품을 미국,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고 있으며, 굴삭기용 부품은 국내 굴삭기 제조업체 3사(현대건설기계, 볼보건설기계 코리아, 두산인프라코어)와 일본 제조업체 2개사(히타치건기 등)에 공급하고 있다.

[그림 1] 동사 크롤러 크레인 및 굴삭기 제품 적용



*출처: 동사 제출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2] 동사 크롤러 크레인용 제품



*출처: 동사 제출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3] 동사 굴삭기용 제품



서브 조립품



체인 기어



터닝 조인트



콘 로드

*출처: 동사 제출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오길봉으로 22.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5인이 32.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동사의 관계회사에 해당하는 제일연마공업이 2.7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5% 이상 주주는 13.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베스트투자로 확인된다.

[표 1] 동사 주요 주주

성명	관계	지분율(%)
오길봉	본인	22.86
오순택	형	20.07
아이베스트투자	투자사	13.25
오유인	형	5.71
오중권	자	2.43
오성환	자	2.43
이진경	배우자	1.51
제일연마공업	관계회사	2.71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 주요 품목별 매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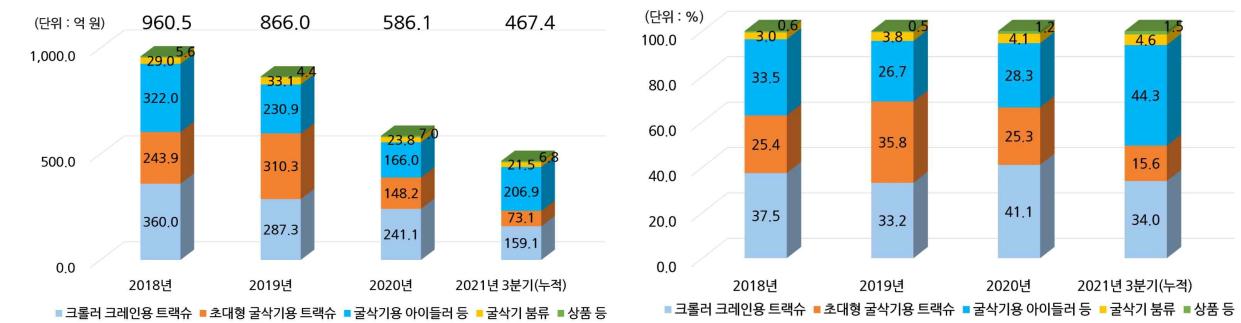
동사의 사업보고서(2020.12), 분기보고서(2021.09)의 연결재무 기준에 의하면, 코로나19에 의해 건설 장비 수요가 감소하는 등 2020년 전체 매출액은 2019년 866.0억 원에서 32.3% 감소한 586.1억 원을 기록하였다.

동사의 2020년 품목별 매출액은 크롤러 크레인용 크랙슈 241.1억 원,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 148.2억 원, 굴삭기용 아이들러 등 166.0억 원, 굴삭기 봄류 23.8억 원, 상품 등 7.0억 원으로 확인되고, 품목별 매출 비율은 크롤러 크레인용 크랙슈 41.1%,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 25.3%, 굴삭기용 아이들러 등 28.3%, 굴삭기 봄류 4.1%, 상품 등 1.2%로 확인되며, 주력 품목은 크롤러 크레인용 크랙슈, 그 뒤를 이어 굴삭기용 아이들러 등으로 확인된다.

동사의 2021년 3분기(누적) 품목별 매출액은 크롤러 크레인용 크랙슈 159.1억 원,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 73.1억 원, 굴삭기용 아이들러 등 206.9억 원, 굴삭기 봄류 21.5억 원, 상품 등 6.8억 원으로 확인되고, 품목별 매출 비율은 크롤러 크레인용 크랙슈 34.0%,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 15.6%, 굴삭기용 아이들러 등 44.3%, 굴삭기 봄류 4.6%, 상품 등 1.5%로 확인되며, 주력 품목이 굴삭기용 아이들러 등으로 전환이 확인된다.

[그림 4] 동사 품목별 매출 추이 및 비율

(공시자료 기준, K-IFRS 연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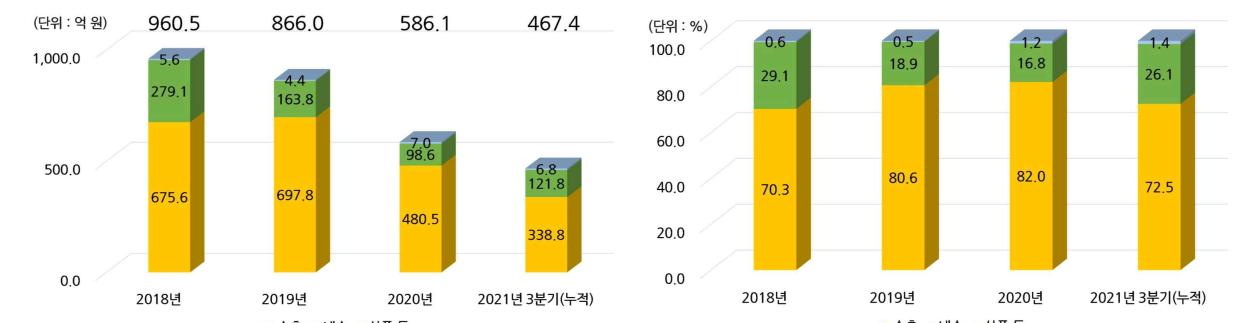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의 사업보고서(2020.12), 분기보고서(2021.09)의 연결재무 기준에 의하면, 수출과 내수를 병행하고 있으며, 2020년 수출 비율이 82.0%, 내수 비율이 16.8%로 주로 매출이 수출을 통해 발생하였다.

[그림 5] 동사 내수/수출 매출 추이 및 비율

(공시자료 기준, K-IFRS 연결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 크롤러 크레인용 및 굴삭기용 트랙슈, 아이들러 등의 일괄생산 기술 보유

동사는 생산설비는 용해설비, 조형설비, 정정설비, 열처리설비, 가공설비, 조립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크롤러 크레인 및 굴삭기에 적용되는 트랙슈, 아이들러 등의 제품을 일괄생산 시스템을 통해 제조하고 있다.

[그림 6] 동사 생산설비



*출처: 동사 제출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트랙슈를 용융, 조형, 절삭가공, 열처리 등의 과정으로 제조하고 있고, 아이들러는 용융, 조형, 절삭가공, 열처리, 다듬질, 조질처리, 클리닝, 조립 등의 과정으로 제조하고 있다.

동사의 제조 관련한 세부적인 과정은 용해, 화학조성 분석, 나사 내기, 용탕 주입, 경질입자 제거(20~25분), 표면 다듬기, 불립($900^{\circ}\text{C} \pm 20$), 연마, 용접, 담글질, 뜨임, 경질입자 제거, 검사(치수검사, 자분탐상검사, 초음파탐상검사, 기계검사), 도장, 포장 등으로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미세경도측정기, 방출분광기, 시료제작기, 열처리기, 충격시험기, 범용시험기, 초음파검사, 경도계, 분광기 등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치수 검사, 표면 직하부 불연속 결함 검사, 초음파 재료 결합 검사, 강도 검사 등을 수행하여 품질경쟁력 확보하고 있다.

[그림 7] 동사 품질관리 설비



*출처: 동사 제출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 건설기계장비는 초대형화, 다기능,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는 중

한국건설신문의 세계건설기계산업 현황과 트렌드(2021.08)에 의하면, 건설기계장비는 최근에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석유화학설비, 대형풍력발전설비, 대규모 산업단지 및 인프라 건설, 초대형 교량 및 대형 스타디움건설 등으로 인하여 초대형화, 다기능, 운반 용이성, 안정성을 고려하여 개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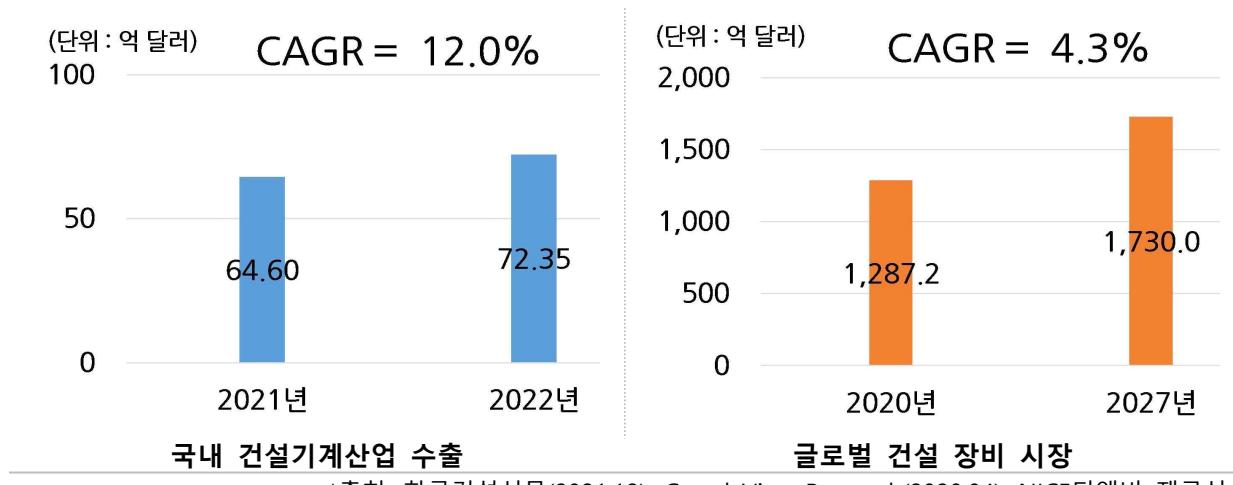
건설기계장비의 크롤라 크레인은 4,000톤, 기중형과 전지형 크레인은 1,000톤, 1,200톤, 2,000톤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의 배기가스 규정에 의해 Tier-5와 Stage V 기준을 만족시키는 엔진으로 개발하고 있고,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낙하물 보호장치, 핸들, 난간, 미끄럼방지장치 등을 설치해 안전통로를 확보하여 개발하고 있다. 또한, 크레인은 경량화로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 개발하고, 승강식 캐빈이 장착된 특수 작업용을 개발하고 있으며, 스마트화를 위한 IoT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하고 있다.

■ 건설 장비 시장은 인프라 개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성장 전망

한국건설신문의 2022 건설기계산업 전망(2021.12)에 의하면, 국내 건설기계산업은 건설 수주의 증가 추세, 시설 투자의 재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생산은 2021년 9.94조 원에서 7.4% 증가하여 2022년 10.68조 원, 내수는 2021년 2.52조 원에서 0.5% 감소한 2.51조 원, 수출은 2021년 64.60억 달러에서 12.0% 증가하여 72.35억 달러, 수입은 2021년 11.87억 달러에서 8.2% 증가하여 12.84억 달러, 무역수지는 52.73억 달러에서 12.9% 증가하여 59.51억 달러를 전망하였다.

Grand View Research의 건설 장비 시장 규모(2020.04)에 의하면, 글로벌 건설 장비 시장 규모는 공공 인프라 개발, 신흥국(인도 등)의 인구 증가로 인한 건설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2020년 1,287.2억 달러에서 CAGR 4.3%로 증가하여 2027년 1,730.0억 달러로 성장을 전망하였다.

[그림 8] 국내외 건설 장비 시장 전망



*출처: 한국건설신문(2021.12), Grand View Research(2020.04), NICE디앤비 재구성

■ 국내 및 해외 경쟁사

[표 2] 국내 및 해외 경쟁사

구분	내용	
국내	진성티이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의 무한궤도식 하부주행체 제조기업임. 2021년 일본 코벨코건기 20톤 굴삭기용 제관 아이들러 아세이 제품을 개발하여 내구성 검증과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강화함.
	흥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건설기계의 하부 구품 트랙롤러, 캐리어롤러, 아이들러 등 제조기업임. 2021년 9월 무한궤도용 롤러의 용접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10-2304203) 등록함.
	대동금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농기계용 주물 제품과 산업용 건설기계 메인컨트롤밸브, 유압부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임. 고객 요구사항 검토, 개발 계획 수립, 주조해석 사전 품질 확보, 주조 방안 및 금형 설계, 양산 방안 검토, 친환경 기술, 품질 안정화 등을 수행하여 신제품을 개발함.
해외	캐터필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에 소재한 기업으로, 건설장비, 광산장비, 가스엔진, 공업용 가스터빈 등 제조 기업임. 2021년 1월 정보기술전시회(Consumer Electronics Show, CES)에서 광산 현장용 반자율주행 산업용 트럭을 선보임.
	고마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에 소재한 기업으로, 건설기계와 중장비 제조 기업임. 2020년 4월 배터리 구동식 미니 굴삭기 PC30E-5를 개발하였고, 구동식 건설기계 실증 실험을 통해 2023~2024년 배터리를 탑재하여 생산할 예정임.
	히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에 소재한 기업으로, 건설기계와 중장비 제조 기업임. 유선식 초대형 중장비 독자 노선을 걷고 있고, 유럽 시장을 타깃으로 설정하여 5톤 전동 굴삭기 등의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출처: 경쟁사 사업보고서(2020.12), 언론사, NICE디앤비 재구성

[표 3] 2020년 기준 국내 경쟁사 재무 비교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구분	업종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동일금속	강주물 주조업	586.1	33.1	66.4	5.7
진성티이씨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3,112.4	230.1	151.5	7.4
홍국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1,191.2	156.1	117.5	13.1
대동금속	강주물 주조업	1,111.1	29.4	152.3	2.6

*출처: 경쟁사 사업보고서(2020.12),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의 경쟁업체로는 진성티이씨, 홍국, 대동금속 등이 있다. 동사와 경쟁사 사업보고서(2020.12)의 연결재무 기준에 의하면, 2020년 매출액은 동사가 586.1억 원으로 경쟁사인 진성티이씨 3,112.4억 원, 홍국 1,191.2억 원, 대동금속 1,111.1억 원 대비 가장 낮은 외형을 기록하였다. 또한, 수익성 관련한 2020년 영업이익률은 동사가 5.7%로 경쟁사인 진성티이씨 7.4%, 홍국 13.1% 대비 낮은 수익성을 나타냈으나, 대동금속 2.6% 대비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였다.

■ SWOT 분석

[그림 9] SWOT 분석



■ ESG 활동



동사는 환경(E)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사업장의 설비 및 온실가스 배출시설에 대해 매년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목표 관리체를 부문별로 시행하여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건설기계장비의 부품 생산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제품의 생산 및 개발 전 과정에 국내외 환경 법규를 준수하여 관련 법상의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동사는 사회(S) 부문에서 고객에게 품질이 신뢰가 되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품질보증체계를 기반으로 생산하고 있고, 품질관리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Hardness Tester, Impact Tester, Ultra Sonic Tester 등의 장비를 통한 품질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제품의 품질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의하면, 동사의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1.8%로 이는 고용노동부 자료(2021.02)에 따른 동 산업(C24, 1차 금속 제조업) 평균 여성 근로자 비율인 10.2% 이하이다.

동사의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135.7%로 산업 평균인 58.0% 대비 2배 이상 상회하며,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 또한 61.6%로 산업 평균인 58.0% 이상으로 동사는 일정 수준 성별에 따른 고용 수준의 평등을 실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동사 근로자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및 급여액

(단위: 명, 년, 천 원)

성별	직원 수		평균근속연수		1인당 연평균 급여액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56	134,762	14.0	11.2	43,383	56,496
여	1	15,348	19.0	6.5	26,722	32,748
합계	203	150,110	-	-	-	-

*출처: 고용노동부(2021.0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지배구조(S) 부문에서 내부자 거래 규제, 공시이행 등을 포함하는 공시정보관리규정과 내부정보관리규정을 개정 및 공표하여 상장기업으로서 공시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의하면, 동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부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사는 감사에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회계처리부서와 자금운영부서를 조직하여 감사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2021년 무상증자를 시행한 바 있으며, 2009년부터 결산배당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표 5] 동사의 지배구조

(단위: 명, %)

이사회	감사		주주	
의장, 대표이사의 분리	-	회계 전문성	O	최대주주 지분율
사내/사외	2/3	특수관계인	-	소액주주 지분율
사외이사 재직기간	6년 미만	내부통제 제도	O	3년 이내 배당
내부위원회	O	감사 지원조직	O	의결권 지원제도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II. 재무분석

2021년 3분기까지 수출 판매 부진에도 전년 동기 수준의 외형을 유지

동사는 2020년 코로나19에 의한 내수 및 수출 부문 장비 수요 감소로 부진한 사업실적을 나타내었으나, 2021년 3분기(누적) 전년 동기 수준의 외형을 유지하였고, 금융수지 개선을 기반으로 반기순이익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었다.

■ 2020년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2021년 3분기(누적) 전년 동기 수준의 외형 유지

동사의 2020년 내수 및 수출 부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굴삭기용 부품(아이들러 등)의 국내외 판매 감소 등으로 인해 매출은 586.1억 원(-32.3% YoY)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외형이 감소하였다. 동사는 품목별로 크롤러 크레인 부품(-16.1% YoY),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52.2% YoY), 굴삭기용 아이들러 등(-25.1% YoY), 굴삭기 봄류(-28.0% YoY) 등의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동사는 2021년 3분기(누적) 굴삭기용 아이들러, 트랙스프링 콘츄롤로드의 판매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초대형 굴삭기용 트랙슈 등에 대한 수출 판매가 부진하여 매출은 467.4억 원(+1.5% YoY)으로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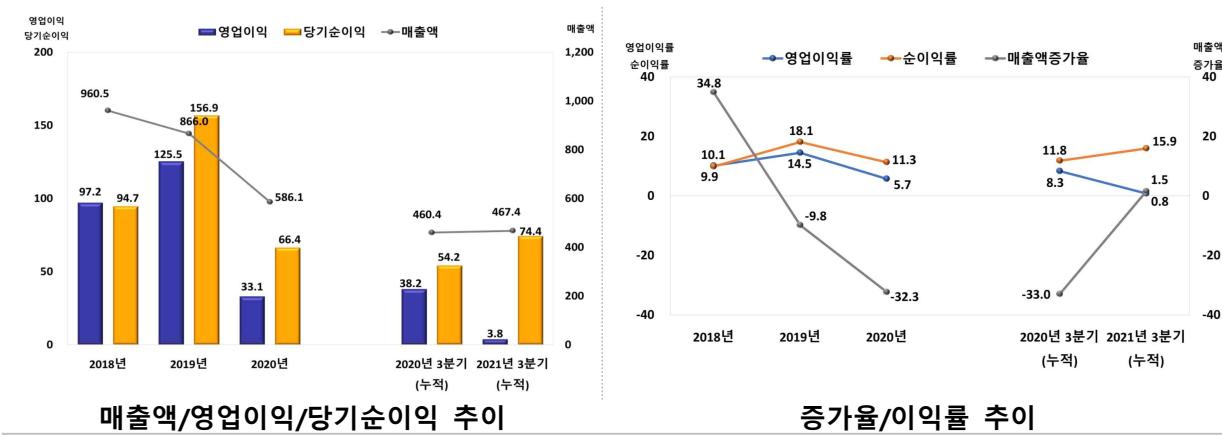
■ 2021년 3분기(누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개선

동사는 2020년 매출 감소에 의한 영업비용 부담 가중 등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 5.7%(-8.8%p YoY), 매출액순이익률 11.3%(-6.8%p YoY)를 기록하여 수익성이 전년 대비 저하된 모습을 보였다.

동사는 2021년 3분기(누적) 원가율 상승 및 판관비 확대 등으로 매출액영업이익률은 0.8%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7.5%p 하락하였으나, 금융자산평가이익 발생 등 금융수지 개선으로 매출액순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4.1%p 증가한 15.9%를 기록하여 개선되었다.

[그림 10]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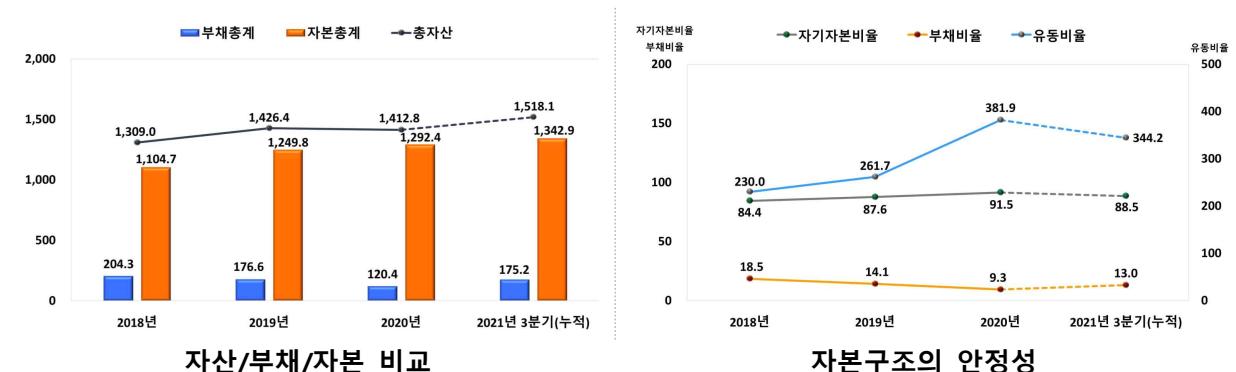
■ 양호한 수익창출력을 기반으로 안정적 재무구조 유지

동사는 양호한 수익성 기반의 지속적인 순이익 내부유보로 최근 3개년간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내부적으로 조달하고 있어 부채부담이 크지 않아 2020년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9.3%, 자기자본비율 91.5%를 기록하여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나타냈다. 또한, 동사는 최근 3개년간 유동비율이 200%를 초과하여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단기유동성도 양호한 수준이다.

동사는 2021년 3분기(누적)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13.0%, 자기자본비율 88.5%, 유동비율 344.2%를 기록하여 여전히 우수한 재무구조를 유지하였다.

[그림 11]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표 6]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기준)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3분기	2021년 3분기
매출액	960.5	866.0	586.1	460.4	467.4
매출액증가율(%)	34.8	-9.8	-32.3	-33.0	1.5
영업이익	97.2	125.5	33.1	38.2	3.8
영업이익률(%)	10.1	14.5	5.7	8.3	0.8
순이익	94.7	156.9	66.4	54.2	74.4
순이익률(%)	9.9	18.1	11.3	11.8	15.9
부채총계	204.3	176.6	120.4	136.6	175.2
자본총계	1,104.7	1,249.8	1,292.4	1,283.4	1,342.9
총자산	1,309.0	1,426.4	1,412.8	1,420.0	1,518.1
유동비율(%)	230.0	261.7	381.9	356.7	344.2
부채비율(%)	18.5	14.1	9.3	10.6	13.0
자기자본비율(%)	84.4	87.6	91.5	90.4	88.5
영업현금흐름	100.3	150.4	79.9	79.8	10.7
투자현금흐름	-72.9	-129.3	-23.5	-54.0	35.7
재무현금흐름	-29.2	-28.4	-27.4	-20.5	-32.3
기말 현금	44.1	37.2	65.0	42.3	79.1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III.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외형 정체를 보였으나, 해외 크레인 수요 확대 등으로 실적 회복 기대

동사는 외형이 정체된 양상을 보였으나, 인도네시아 해외현지법인의 고철 수급을 위한 정관 목적사항 추가, 건설장비 수요 조사를 통한 거래선 개척,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크롤러 크레인 수요 확대되는 등으로 인해 향후에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

■ 2021년 3월 인도네시아 해외현지법인의 고철 수급을 위한 정관 목적사항 추가

동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 있는 해외법인 계열사인 PT. DONGIL METAL INDONESIA, PT. DONGIL CASTING를 통하여 반제품 소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의 공장은 설계, 열처리, 정밀가공, 조립 등의 일괄공정체제가 확립되어 있어 원가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유압기능품 소재부문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철강사들은 최근에 철광석 가격 급등과 탈탄소 추진으로 인하여 철광석 가격 인상의 부담을 줄인 쇳물을 만들기 위해 철스크랩(폐차나 폐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고철) 사용량을 확대하였으며, 철스크랩 가격 강세가 당분간 예상되어 수입처를 다변화해서 대응하고 있다.

동사는 2021년 3월 제37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사항에 인도네시아 해외현지법인의 원활한 고철 수급을 위한 목적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고철과 반제품 소재를 원활하게 수급하여 국내 및 해외 건설기계장비 제조업체에 품질, 가격, 적기공급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업 전개가 기대된다.

■ 국내 및 해외 건설장비 수요 조사를 통해 신규 거래선과 신시장 개척 중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의하면, 동사의 2020년 매출목표는 704억 원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기계장비 수요가 감소하여 목표대비 17% 미달한 584억 원을 달성하였다. 국내 굴삭기 제작 3사의 생산계획은 유럽지역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당초 예상 생산대수를 초과하였고, 2021년 상반기까지 수요가 지속되었으며, 2021년 하반기에 수요는 상반기 대비 큰 감소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사는 2021년 매출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획하였다.

동사는 일본의 2021년 건설장비 수요를 2020년 보다 증가를 예상하였으며, 유럽은 코로나19 감염 전파에도 불구하고 건설장비 생산 가동률은 감소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의 불투명한 상황으로 인하여 신차 구입보다는 부품교체와 렌탈장비 증가를 예상하였다. 또한, 중국은 건설장비는 과열 양상에 의한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예상하였고, 신흥국과 동남 아시아는 유가 회복 등으로 인하여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동사는 국내 및 해외의 건설장비 수요 조사를 통해 신규 거래선과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기존에 거래중인 업체는 신규부품과 모듈화된 완성품을 개발하여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 해외 크레인 수요 확대 등에 의한 업황 회복으로 실적 개선 기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 설비인 풍력발전소 및 댐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어 크롤러 크레인의 수요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 인도 등에서 동남아시아의 석유화학, 전력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크롤러 크레인의 점진적인 수요 증가가 전망되어 건설 장비의 업황 회복이 기대된다. 또한, 노후화된 장비 교체와 정비 등으로 크롤러 크레인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바, 동사의 실적 회복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최근 1년 내 증권사 투자의견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2]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